

2018 제6차 충남미래연구포럼 개최 결과

'18. 8. 24.(금)

〈 포럼 개요 〉

- ◇ 때 · 곳 : 2018.8.24.(금)11:00~17:00/서울 희망제작소, 성미산마을
- ◇ 참 석 : 총 15명
 - (충남연구원) 송두범, 홍원표, 송영현, 박춘섭, 전지훈, 이홍택, 정봉희, 전춘복, 강수현 9명
 - (희망제작소) 김제선 소장 및 3명
 - (성미산마을) 서울혁신로드 코디네이터 조준영 및 3명
- ◇ 주 제 : 시민참여형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사례 조사(희망제작소 및 서울혁신로드 현장체험)

□ 주요내용

① 시민참여형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

○ 우리나라 연구집단의 문제의식

- 한국 연구자 집단은 지식생태계네트워크와 형식적 권위속에서 연구집단의 시민생활현장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, 시민적 필요의 의제화가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
- 관 주도 연구집단에서 민간인 대기업의 연구집단으로, 그리고 시민주도 연구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, 현재는 전반적인 연구계가 침체되어 있음

○ 사회혁신과 희망제작소의 대안

- 서울시 민선 5,6기 박원순 서울시정의 공식 주요 정책기조는 마을 만들

- 기, 포괄적 청년정책, 사회적 경제정책, 공유도시정책,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 등 ‘사회혁신’이라는 이론적, 정책적 프레임을 기반하고 있음
- 국책연구원 및 대기업연구소, 학계 등에서는 사회혁신에 대한 이론적, 정책적 연구를 수행해오지 못함
 -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 정책을 소개하고, 개발 및 연구하며, 실제 자치구 현장에 직접 실험하는 역할을 수행해 옴.
 -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이 부상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때, 시민사회 싱크탱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

②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: 성미산마을 공동체 사례

- 성미산마을은 도시지역의 크고 작은 생활문화 관계망을 의미
 - 도시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힘들었던 부모들이 모여 전국 최초로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음
 - 이후 생활협동조합, 반찬가게, 어린이집, 대안학교, 마을축제, 카페, 마을극장 등 크고작은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이 확립되었고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 중임
 - 마을 네트워크, 교육, 경제, 문화, 생태환경, 주거 등 각 분야에서 마을을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고 있음
- 성미산 마을은 20여년에 걸쳐 형성된 지역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직들이 형성·운영되고 있는 독특한 지역생태계임
 - 2회에 걸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간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으며,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표출된 것임
 - 성미산 마을 구성원들은 주민들간 별칭 사용, 마을 축제, 성인식, 조직간 상호거래 등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·발전

③ 충남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

○ 희망제작소의 오픈소스 플랫폼 현장연구

- 다양한 지식체계와 데이터들이 개방되고 누구나 접속 가능하게 되면서 전문 연구자 중심의 지식독점체계가 변화하고 있음
-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생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및 행복증진으로 변화하면서 현장 적용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
-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연구방법과 이론의 중요정보다는 주민의 삶과 현장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의 연구들과 일반주민에 의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으며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기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임
- 충남연구원도 충남도민 삶의 질 향상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도민수요기반의 현장연구사업 분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단순 도민에 의한 연구결과물 도출이 아니라 도와 협의를 통한 정책입안으로까지 제도화하는 실천적 계획이 필요함

○ 충남연구원이 도민참여연구 플랫폼 역할 수행

-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정을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도정의 수혜자인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보다, 충남도나 시군 공무원들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음.
- 급변하는 도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남연구원내 도민연구를 지원하고, 도민이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간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.
- (가칭)충남도민연구실을 설치하여 도민이 제안한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원을 배치하고, 도민이 직접연구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도민참여 연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.
- 신임 원장의 취임시 도민참여연구플랫폼 역할 및 구축필요성에 대해

여 건의함..

- 시민들이 연구문제를 직접 제기하고, 해결방안을 도출하며, 연구자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전략 수립 필요
 - 충남연구원의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,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마련 필요
 - 단, 특정 시민집단의 중심의 연구결과 도출 시 공공성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
 - 또한 개별 시민연구자, 민간연구소, 공공연구소 간의 거버넌스 수립 방안 모색 필요
 - 관이 중심축이 되어 고민하고, 기획하고 나아가 활용하는데 그친 기존 연구를 충남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, 기획하며 또 정책으로 활용함에있어 문제점도 같이 발굴한다면 ‘살아있는 정책’이 될 것이고, ‘살아있는 연구’가 될 것임. 이에 도민들은 도정(시정), 충남연구원에 대한 만족도도 제고되는 기회가 될 것임

-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성미산마을
 - 성미산 마을의 사례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상호성의 힘으로 해결하고 관계속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작동하는 현장을 보여줌
 - 성미산 마을의 형성과 발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충족하며 후대와 주변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의 실마리를 확인
 - 마을 공동체와 이에 기반한 주민의 삶은 공공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민 스스로 공동의 욕구를 발견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의 활동공간제공이나 등지내몰림 현상의 억제 등과 같은 간접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할 것임

- 충남지역에 성미산 마을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핵심은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식임
 - 단순히 그들의 활동을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, 그들이 공동육아, 생협, 식당 등을 해야만 했던 지리적 환경과 그들이 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 - 지역사회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욕구를 충족하는 요인(성미산마을의 경우 공동육아)이 있어야 하며, 양호한 조건을 부여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기 보다는 타깃 대상들의 공통욕구에 맞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□ 활동사진

